

조선 후기 천주교 성인전 연구

한글본 『성년광익』에 나타난
기적을 중심으로

김정경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고전문학 전공
jngkngkim@gmail.com

- I. 머리말
- II. 한글본 『성년광익』의 서사 구조
- III. 한글본 『성년광익』의 기적의 양상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조선 후기 천주교 신도들이 읽고 따르려 했던 성인전(聖人傳)을 검토하여, 19세기 조선인들이 서학을 이해하고 수용한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18-19세기 성인전 독서가 주체를 구성하는 새로운 방식과 관계된 것으로 보고 그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중세와 근대의 독서 방식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대체로 낭(음)독에서 묵독으로의 전환에 주목하고 이러한 변화가 근대적 개인, 즉 내면을 가진 주체의 형성과 긴밀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천주교 관련 서적의 독서¹⁾, 그중에서도 특히 신자들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해준 성인전의 독서²⁾가 새로운 주체의 구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천주교 성인전 이전에도 조선에는 불교의 고승전과 유교의 열전·사전 등이 존재했지만, 천주교 성인전은 이들과는 구분³⁾되는 텍스트로서 천주교와 함께 도입된 새로운 서사 양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읽혔을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 텍스트를 종교문헌인 동시에 조선 후기에 새롭게 나타난 양식의 문학적 서사로 보고, 천주교 신도이자 문학작품의 독자로서 천주교인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서사 양식이 새로운 독서 방식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새로운 독자층을 형성하였음을 입증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18세기부터 활발하게 읽힌 천주교 성인전 『성년광익(聖年廣益)』을 검토할 것이다.

『성년광익』⁴⁾은 1년 365일 동안 매일, 그날 선종한 성인과 성녀의

1) 물론 당시에 천주교 서적의 독서는 음독과 묵독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민희, 「18세기 말-19세기 천주교 서적 유통과 국문 독서문화의 상관성 연구」, 『인문논총』 71권 4호(2014), 20쪽 참조.

2) 방상근, 「18세기 말 조선 천주교회의 발전과 세례명」, 『교회사연구』 34(2010), 88쪽.

3) 하성래, 「순교일기의 전기문학으로서의 특성」, 『한국교회사논문집』 I (1984), 448쪽.

4) 『성년광익』은 1년 365일 동안 매일 그날 선종한 성인·성녀들의 전기를 수록한 책으로, 서명의 성년(聖年)은 날마다 후보성인이 있어 1년이 성스럽다는 뜻이며, 광익(廣益)은 성전을 통해 매일의 후보성인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됨이 넓다는 뜻이다. 방상근, 「『성년광익』의 서지 연구」, 『聖年廣益』(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6쪽.

전기를 수록한 책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판본은 1738년에 간행된 드 마이야(J. M. de Mailla, 1669-1748) 신부의 『성년광익』 한문본과 저자 및 간행 시기 미상의 『성년광익』 한문본·한글본이다. 이 판본들이 어떤 책을 번역하거나 참조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드 마이야 신부의 『성년광익』은 프랑스 출신 예수회 신부 크르와세(J. Croiset, 1656-1738)의 『연중 매일의 성인들의 전기(Les Vies des Saints pour tous les jours de l'année)』를 번역한 것이거나, 이 책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드 마이야 신부가 저술한 것이라고 한다.⁵⁾ 저자와 간행 시기를 알 수 없는 『성년광익』⁶⁾은 “드 마이야본의 축약본”⁷⁾으로 보기도 하는데,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드 마이야본을 토대로 했지만, “드 마이야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기준하에 새롭게 작성된 성인전”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가운데 이 글에서는 『성년광익』 한글본을 주된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저자와 간행 시기, 번역자와 번역 시기가 모호함에도 조선 후기 독서 문화의 특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성년광익』 한글본을 다루는 이유는 “글을 배우고 글귀에 밝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책을 저술했다”⁹⁾는 제작 배경, 즉 무지한 일반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그들의 입장에서 저술된 책이라는 점¹⁰⁾ 때문이다. 『성년광익』 서¹¹⁾에는 이와 같은 텍스트의 저술 목적과 핵심

5) 두 판본은 모두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 교회사 연구 자료 제28집’으로 간행되었다. 드 마이야 신부의 『성년광익』은 프랑스 출신 예수회 신부 크르와세(J. Croiset, 1656-1738)의 *Les Vies des Saints pour tous les jours de l'année*를 번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책은 드 마이야 신부가 참조한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인 듯하다. 위의 논문, 6-8쪽 참조.

6) 한글본은 한 달의 내용을 1년으로 묶고, 6월만 상·하권으로 나누어 총 13권으로 되어 있다. 한글본은 1865년 『유년첩례광익』보다 앞서 번역되었다는 견해가 있고, 20세기 초에 번역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김윤성, 「초기 한국 가톨릭 성인 전기의 서지: 한문 서학서의 전래와 번역」, 『교회와 역사』 302호(2000), 7-8쪽.

7) 위의 논문, 57-59쪽.

8) 방상근, 앞의 논문(2014), 14쪽.

9) 방상근, 앞의 논문(2014), 9쪽.

10) 방상근, 앞의 논문(2014), 14쪽.

11) “서에 곁오되 두루 고금에 모든 성인을 보건대 성전으로 말미암지 아니코 성인된자ㅣ 적으나 그러나 박학한 이들도 일즉 책을 덮고 그 어려움을 탄식하였거든 호물며 교우들은 글을 익이 비혼자ㅣ 적고 글귀절에 불지 못혼자ㅣ 만혼지라 그런고로 이 글은 어렵고 깊게 아니호고 말은 불이호기만 힘쓰며 쓰기는 알개호기만 힘써서 이 책을 스랑호는 자로 호여곰 보매 소경이 눈을 썸고고 드르매 귀막힌 이 귀를 염 고호야 말이 귀에 들매 일이 마음에 맞사잇고 글을 눈에 슬피매 책을 손에 놓지 못호게 호역시

내용이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한두 사람의 아름다운 글귀와 문법의 높은 경지를 탐하는 것보다 모든 이를 위한 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년광익』이 당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한글 번역본은 신자들 스스로 성인의 행적을 공부할 수 있게 했다¹²⁾는 점에서 당시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야만 했던 이들에게 교리서보다 영향력이 컸으리라고 짐작된다. 신부가 “주일과 축일에 모인 신자들에게 교리 문답, 복음 성경, 성인 전기 등을 몇 대목 읽게 한 다음, 회장이 낭독한 대목을 해석”¹³⁾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19세기 조선의 천주교 신도들은 신부의 주도 아래 미사, 영성체, 고백 성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었다. 조선의 신자들에게는 공적인 종교적 실천보다 신자들끼리 또는 각자가 행하는 사적인 종교적 실천이 더욱 보편적이었다.¹⁴⁾ 그러므로 성인전은 신부의 지도 아래 함께 읽는 책이기도 했지만, 대체로 무지한 신자들도 혼자서 쉽게 읽고 이해하여 실천할 수 있는 대중적인 책이었던 것이다.¹⁵⁾ 요컨대 한글본 『성년광익』은 당시 한문을 읽고 쓰지 못하는 “글 귀절에 붙지 못한 자”들의 종교적 실천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들의 독서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 적합한 텍스트라고 판단된다.

성인전을 비롯해 조선 후기 천주교 관련 자료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종교사적인 관점에서 천주교의 유입과 박해 그리고 순교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인전과 관련한 것으로는 이재순¹⁶⁾, 김운성¹⁷⁾, 방상근¹⁸⁾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운성은 초기 한국

니 맛당이 다만 이복이나 즐겁게하고 정신에 무익한 늙은 글 보기를 도모하지 말지어라 이 글을 지음이 크게 전과 다르니 그 번거함을 짚고 그 그만함을 드러내며 그 리를 실다히하고 그 결함을 기워 어린 자로 그 뜻을 잊게 하고 슬거운 자로 그 정미함을 보게 해야 사람마다 알기쉽고 힘키쉽게 하였시니 엇지 훗사람에게 니익되지 아니리오 혹은 글오덕 그러치 아니타하거늘 뒤답하야 글오덕 생각지 못함이라도 프랏 요긴홀 도는 모든 사람을 위함이니 엇지 한두 사람의 아름다운 글귀의 놓힘과 문법의 빛나는 거시나 탐함을 위하면 무슴 니익이 잇스리오 나 | 곤절이 원하느니 이 글을 보는 자는 몸소 테 밧고 힘써 힘홀지이다. ……”(밑줄· 띄어쓰기 필자). 『성년광익서』, 『성년광익』(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137-138쪽.

12) 방상근, 앞의 논문(2014), 15쪽; 방상근, 앞의 논문(2010), 84쪽.

13) 샤를르 달레 저, 안응열·최석우 역, 『한국천주교회사』 중(분도출판사, 1979), 335쪽.

14) 김운성, 앞의 논문, 69쪽.

15) 방상근, 앞의 논문(2014), 9쪽.

16) 이재순, 「주년침례광익의 분석: 성인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논문집』

가톨릭 성인 전기의 서지와 구조적 특성을 검토하면서,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읽었던 성인전이 중세적 성인전에 좀 더 가깝고, 성인의 이야기와 신자의 삶이 서로 밀접히 맞물려 순환하면서 서로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밝혔다.¹⁹⁾ 방상근은 『성년광익』 서지 연구에서 저자 미상본과 드 마이야 신부본의 서지 사항을 자세히 밝히고 두 판본이 박해시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었다.²⁰⁾ 이 연구들은 모두 한글본 성인전이 당시 천주교 신자들에게 매우 결정적인 삶의 모델 역할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자들의 삶과 성인전 독서의 상호 관계의 양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이들 자료의 문학사적 의의에 주목한 국문학 연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창기 하성래²¹⁾의 연구를 필두로 정병설²²⁾, 이유진²³⁾, 김정경²⁴⁾, 윤인선²⁵⁾ 등이 순교일기를 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순교자와 순교자전의 서술자 나아가 이들이 몸담고 있던 시기의 문화를 읽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²⁶⁾ 국문학 분야에서는 아직 천주교 성인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으나,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유럽의 성인전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 외국어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참조할 필요가 있다.²⁷⁾

II(1985).

17) 김윤성, 앞의 논문.

18) 방상근, 앞의 논문(2014), 6쪽.

19) 김윤성, 앞의 논문, 80-81쪽.

20) 방상근, 앞의 논문(2014), 15-16쪽.

21) 하성래, 앞의 논문.

22)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순교자 이순이의 옥중편지』(민음사, 2014).

23) 이유진, 「한국 천주교 순교자 설화 연구: 여성 동정 순교자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6(2008).

24) 김정경, 「조선 후기 천주교 여신도들의 죽음의 의미화 방식 연구: 이루갈다의 〈옥중서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2011); 김정경, 「조선 후기 천주교 여신도의 주체화 방식과 생애 기술 방식에 대한 고찰: 〈기해일기〉에 실린 여성 순교자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2014).

25) 윤인선, 「〈기해일기〉에 나타난 순교 경험의 서사화 양상: '고난'을 매개로 나타나는 순교의 문화적 의미」, 『기호학 연구』 38(2013).

26) 김정경, 앞의 논문(2014), 36쪽.

27) 김상현, 「유고슬라비아 중세 성자전과 구비문학의 영향관계 연구: 동방정교권의 성자전과 구비문학을 중심으로」, 『동유럽연구』 제16권(2006); 장실, 「러시아 정교회 성자전 개관」, 『노어노문학』 13권 2호(2001), 554-555쪽; 강우성, 「설교, 자서전, 에세이: 미국 개인주의 담론의 기원」, 『미국학논집』 42권 2호(2010), 108쪽; 김연희, 「율리ानी

이에 더해 문화사적인 맥락에서 한글 필사본의 필사자와 독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때 천주교 관련 자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²⁸⁾ 천주교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필사본 자료에 대한 연구는 조선 후기 독서문화와 필사문화의 변화 양상과 성격을 밝히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⁹⁾ 지금까지 천주교 한글 필사본 자료들이 한글 독자층의 형성과 한글 독서문화 형성에 귀중한 자료임을 입증하는 몇 편의 논의가 있었는데, 이 논의들은 이들 전기가 한글로 쓰여 천주교 공동체에서 쉽게 소용되었다는 점을 필사본의 유통이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³⁰⁾

이 글에서는 천주교 관련 자료들에 대한 문화사적 검토와 거기에서 도출된 이러한 결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주교의 중세적 특질이 조선의 중세 및 근대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성인전을 중심으로 문학적 관점에서 규명하려 한다.³¹⁾ 요컨대 지금까지 한글 필사본과 한글 독자에 대한 논의들이 텍스트의 유통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했다면, 이 글에서는 텍스트 내적 특질로부터 위의 문제들에 접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글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성인전의 서사가 지금까지 조선의 독자들이 읽어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독서 규범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궁극적으로 천주교 성인전 독서를 통한 한글 독자층의 확대가 갖는 의미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야 라자웁스까야 성자전 연구」, 『한국노어노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02), 55-72쪽; 홍옥숙, 「자서전과 성인전 사이에서: 앤 애스큐의 심문」, 『새한영어영문학』 57권 3호 (2015), 85-103쪽; 최예정, 「중세 영문학에 나타난 젠더, 기독교, 그리고 읽기: 성녀전과 마저리 캠프를 중심으로」, 『중세르네상스 영문학』 14권 2호(2006), 301-328쪽; 김현진, 「참수의 윤리 공포, 여성, 중세 로맨스」, 『안과 밖』 35집(2014), 12-42쪽.

28)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 출판 성행의 매체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2008); 이지영, 「한글 필사본에 나타난 한글 필사의 문화적 맥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2008); 이민희, 앞의 논문.

29) 문학뿐만이 아니라 교회사적인 맥락에서도 한글본 교리서의 필사와 유통이 여성 및 평민층의 입교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논의가 있다. 노용필, 「조선후기 천주교 한글 필사본 교리서의 유통」, 『인문논총』(2009); 노용필, 「남회인의 「교요서론」 수용 및 한글본 「교요서론」 유포와 조선후기 천주교의 성장」, 『한국천주교회사의 연구』(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조한건, 「필사본 《성경직회광익》의 편찬배경과 형성」, 『한국 천주교회사의 역사와 문화』(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30) 이민희, 앞의 논문, 38쪽; 노용필, 앞의 논문(2009), 43쪽.

31) 성인전과 그것의 번역·필사·독서는 중세와 근대가 만나는 양상을 읽어내기에 매우 적합한 대상임에도 교회연구자들에 의해서조차 본격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다. 김윤성, 앞의 논문, 52쪽.

II. 한글본 『성년광익』의 서사 구조

『성년광익』에 실린 약 365명의 성인 가운데 이 글에서는 여성 성인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선의 순교일기를 대상으로 한 기존 논의들에서 이미 여성 신자와 남성 신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순교 의식과 세례명의 의미를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이 삶의 모범으로 삼고자 읽은 성인전을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 또한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여성 신자들이 남성 신자들보다 좀 더 강한 순교 의식을 지녔으며, 이것이 자신의 본명 성인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이라거나, 남성 신자들이 교회의 조직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면 여성 신자들은 동정·치명 등 개인적인 신앙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등³²⁾ 기존의 연구결과가 말하듯 남성 신자들과 여성 신자들이 성인전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 방식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분명 성인전에 쓰인 남성 성인과 여성 성인의 삶의 기술 방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여성 성인전만을 다루는 데에는 365편의 성인 전기를 한꺼번에 검토하기에는 분량이 방대하다는 실질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여성 성인전을 먼저 연구한 후에 다른 지면에서 남성 성인전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작자 미상의 한글본 『성년광익』에는 총 74편의 성녀, 성부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 장에서는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검토해보겠다. 『성년광익』에 쓰인 성녀, 성부의 이야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

- ① 인물 소개 ② 수정(守貞) 결심 ③ 1차 시련 ④ 1차 시련의 극복 ⑤ 2차 시련
⑥ 2차 시련의 극복 ⑦ 수양·극기 ⑧ 목시 ⑨ 승천 ⑩ 사후 이적(異跡)³³⁾

먼저 ‘인물 소개’ 부분에는 태어난 지역과 가정 형편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다. 이어지는 ‘수정 결심’ 부분은 대체로 성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바른 품성을 지녔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레 ‘수정’을

32) 방상근, 앞의 논문(2010), 82쪽.

33) 『성년광익』의 서사 구조는 표로 정리하여 별첨하였다. 표에 정리된 숫자는 이 순서를 따른 것이다.

결심했다는 이야기이다. 다음으로 시련(1차 시련)이 발생하는데³⁴⁾, 대체로 여성 성인전의 시련은 수정할 뜻을 꺾으려는 이들로 인한 것이다. 간혹 시련을 극복한 후에 또 다른 시련(2차 시련)을 맞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때 혼인을 강요하는 부모로 인한 시련이 1차 시련으로 제시된 후에, 관원에 의해 재차 고문과 형벌이 가해지는 2차 시련이 뒤따르는 경우가 있으며, 간혹 혼인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이나 마귀의 유혹 같은 시련이 제시되기도 한다. 혼인 갈등이 나타나지 않아도 시련의 내용만 다를 뿐 대체로 위와 같은 서사 진행을 보인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1차 시련과 2차 시련을 모두 극복한 성인들은 더욱 열심히 수양하고 극기하며(수양 및 극기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시련 이전에 또는 시련 과정 중에 수양과 극기의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어려운 이들을 돕다가 세상을 떠난다. 이때 천주는 이들에게 승천할 날짜를 ‘묵시(默示)’한다. 자신이 떠날 날을 안 성녀는 편안한 모습으로 ‘승천’하고, 성인전은 그녀들이 죽은 후 그 무덤에서 ‘이적’이 무수히 일어났다는 후일담으로 마무리된다(사후 이적 부분은 생략되기도 한다). 요컨대 『성년광익』에 실린 여성 성인의 전기는 대체로 어려서부터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들, 때로 그들 가운데 수정을 결심하여 혼인하기를 거부한 이들이 겪는 고난과 그것의 극복을 그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³⁵⁾

성인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련 극복 이야기(총 74편의 성인전 가운데 63편)의 서사 구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소설의 서사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³⁶⁾ 주인공이 위기를 모면하여 적을 무찌른 후 영광을 쟁취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러나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비교·분석해보면 성인전은 영웅 소설과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며, 이 차이점이 곧 성인전의 고유한 특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34) 차례로 검토하겠지만, 시련과 극복의 과정이 모두 생략된 서사도 존재한다.

35) 총 74편의 여성 성인전 가운데 시련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10편, 감옥에서의 형벌과 고문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28편, 수정 결심 및 혼인 거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19편이다(19편 가운데는 수정부부의 이야기도 포함된다).

36) “(영웅소설의) 그 유형적 구조를 간추리면, i 예시롭지 않게 출생하고 비범한 자질을 갖춘 고귀한 신분의 주인공이, ii 뜻밖의 재난으로 위기에 부딪혔다가, iii 구출·양육자의 도움을 얻어 이를 모면하고, iv 힘과 지혜를 기른 뒤 마침내 세상에 다시 나아가, v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영광을 쟁취한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 구조에 걸맞게 주인공들은 모두가 탁월한 재자·가인이며, 작품의 전체적 분위기와 문체는 장중·엄숙한 흐름을 유지한다.”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민음사, 1992), 86쪽.

영웅 소설의 주인공이 “영광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비범한 자질을 갖춘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가 조력자의 도움으로 “힘과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것은 타고난 자질과 고귀함이 있어서이다. 또한 그의 모든 능력과 노력은 악인을 무찌르고 영광을 쟁취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이것들은 긴밀한 인과관계로 엮여 있다.

반면 성인전의 주인공들이 시련을 극복하는 것은 타고난 자질과 고귀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능력과 노력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인물 소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좋은 집안 출신이기도 하고 평범한 집안 출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성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고귀한 신분일 필요는 없다. 성품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대부분의 성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매우 착하고 성실하며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소개되지만 성부 마르가리타³⁷⁾와 같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부도덕한 삶을 산 이도 있고, 성녀 펠라지아³⁸⁾처럼 창녀도 있으며 성녀 제노베파³⁹⁾와 같이 평범한 가정에서 출생한 이도 있다. 요컨대 영웅 소설이 주인공의 타고난 자질과 신분을 증명하는 이야기인 데 비해 성인전은 성인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무언가를 입증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자질 혹은 본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인이 되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성인이 되는 것과 개인의 노력이 어떠한 관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성인의 노력이 제시된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특별한 시련 없이 수양과 극기만으로 기적을 경험한 성인들의 이야기를 검토해보겠다.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⁴⁰⁾

표1에 제시한 10편의 성인전은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고 기적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이다. 대표적으로 성부 마르가리타 황후는 어려서부터 전심으로 천주를 공경하고, ‘에고시아’ 국왕과 혼배한 후에도 착한 마음으로 나라일을 돕고, 아들을 가르치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에 늘 힘썼다. 이렇게 평생 수양과 극기에 힘쓴 성부는 자신의 임종일과 나라에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다음 세상을 떠난다. 이와 같은

37) 『성년광익』, 302-306쪽.

38) 위의 책, 942-945쪽.

39) 위의 책, 154-157쪽.

40) 표5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서사의 순서를 적고, 기적이 일어나는 단위에는 밑줄만 그었다.

표1-시련 없이 기적을 경험한 여성 성인 목록

축일	이야기 순서
1월 28일	성부 바울라 수절 고수 ①②⑦⑧⑨
2월 10일	성녀 스킴라스티카 동정 ①②⑦⑧⑩⑨
3월 11일	성녀 카타리나 동정 ①⑦⑧⑨⑩
6월 10일	성부 마르가리타 황후 ①⑦⑩⑨
6월 23일	성후 에멜드레다 동정 ①②⑦⑧⑨⑩
7월 8일	성부 엘리사벳 국후 ①⑦⑩⑦⑨
8월 12일	성녀 글라라 동정 ①②⑦⑨⑩
8월 21일	성부 요안나 수절 ①⑦⑩②⑦⑨
10월 15일	성녀 제르트루다 동정 ①②⑦⑩⑦⑩⑨
12월 24일	성녀 타르실라 동정, 성녀 에밀리아나 동정 ①②⑦⑧⑨⑩=⑧⑩

유형의 전기를 읽은 독자들은 성부의 모범적인 삶이 앞일을 미리 아는 기적을 가져왔다고, 즉 그녀에게 개인의 노력과 의지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사례들만으로 수양과 극기가 곧 기적을 가져온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성년광익』에 소개된 총 74편의 여성 성인전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는 10편으로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더구나 표2에 제시한 네 편의 사례는 기적을 경험하는 데 개인의 노력과 수양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년광익』에는 표1에 제시한 사례들과는 반대로 성인의 노력이나 행위 이전에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 이야기들도 존재한다.

표2에 제시한 사례들은 천주의 기적이 서사의 가장 앞에 제시되는 이야기들이다. 여기에서는 천주가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인공이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가령 성부 마르가리타의 전기에서, 천주는 정을 통해 남자와 도망친 한 여인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수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⁴¹⁾ 성녀 콜레타는 어려서 천주의 ‘총광’을 입어 명오가 밝게 되었다고 하며, 기도로 상처가 낫는 경험을 통해 믿음을 굳건히 한다.⁴²⁾ 즉 천주가 이들을 먼저 선택하여 시련이나 기적을

41) 『성년광익』, 303쪽. “던주의 성우 그 마음을 묵계하사 전에 더러운 형실이 다 명오에 발현하니 스스로 그죄를 통회하야 곳 죄를 곳쳐보속히기를 믿음에 덩하고 즉시 본집에 도라와 부친의 발아래 쏠어 엎디어 통곡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니.”

42) 『성년광익』, 374쪽. “어려서 곳 던주의 총광을 넘어 명오 심히 밝고, “두어살의 독기에 발을 상하야 상한 곳을 싸먹고 주의 은혜 베프심을 괴구하였더니 이튿날 온전이 나아 흔적이 업스니 일노 인하야 감격함을 더하야 묵상하고 녁경하매 주지에 합함을 구하시니.”

표2-기적이 행위에 앞서 일어난 여성 성인 전기 목록

축일	이야기 순서
2월 13일	성부 마르가리타 고수 ①⑩⑦③④⑧⑨
3월 6일	성녀 콜레타 동정 ①⑩③⑦④⑤⑥⑨
3월 9일	성부 프란치스카 고수 ①②⑩⑥②⑩⑧⑨
7월 2일	성모 엘리사벳 찾아가심 (참례일 설명)

배푼 뒤에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표1의 사례들에서 성인들의 지극한 노력, 즉 수양과 극기가 기적을 가져온 데에 비해, 이 주인공들의 의롭고 올바른 행동은 천주의 기적 이후에 전개된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년광익』에 나타난 기적이 반드시 주인공의 행동과 노력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사례들에서 기적은 인물의 노력이나 시련을 극복하려는 행위 이전에 갑작스럽고도 우연하게 나타난다.

물론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경험하는 이야기가 더 많고, 이는 『성년광익』에 실린 성인전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서사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적과 시련의 극복을 인과관계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표3의 사례들에서 성인은 고문과 형벌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천주의 도움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갖은 고문과 형벌을 모두 이겨낸 뒤에 후일 승천하기도 하며, 고문을 모두 이겨낸 뒤에 죽음을 맞이하거나, 한 번의 시련은 이겨내지만 두 번째 시련은 극복하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혼인을 거절하고, 배교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뒤따르고,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해도, 그들이 언제 고난에서 빠져나올 것인지, 과연 그와 같은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를 짐작하기는 어렵다. 즉, 믿음이 좀 더 강하다면, 적의 형벌에 좀 더 강경하게 저항한다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는 힘들다. 이 이야기들에서 기적은 주인공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주인공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기적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 기적은 그저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가령 성녀 마르티나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배교를 강요하는 온갖 고문을 피하고 난 뒤에 결국 관원의 칼에 죽음을 맞는다. 주인공이

표3- 고문(극복) 과정에서 순교한 여성 성인 목록

축일	이야기 순서
1월 30일	성녀 마르티나 동정 치명 ①③④⑤⑨⑩
2월 6일	성녀 도로테아 동정 치명 ①③④⑤⑨
3월 20일	성녀 레오크리시아 동정 치명 ①③④⑤⑨⑩
3월 28일	성부 페르페투아 치명, 성부 펠리치타 치명 ①③④⑤⑨
5월 12일	성녀 도미틸라 치명 ①②③④⑤⑨⑩
5월 22일	성녀 율리아 동정 치명 ①③⑦④⑤⑨⑩
7월 6일	성부 고델리바 치명 ①③⑦④⑤⑨⑩
9월 7일	성녀 레지나 치명 ①③④⑤⑨
10월16일	성녀 에올람피아 치명 ③④⑨
10월27일	성녀 사비나 치명, 성녀 크리스테타 치명 ③④⑤⑨
12월 2일	성녀 비비아나 동정 치명 ①③⑨
12월 9일	성녀 레오카디아 치명 ①③⑨

1차 시련에서 보여준 기적은 그가 충분히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러한 시련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후에 치명에 이른다. 『성년광익』에는 이처럼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기를 피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기적을 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성년광익』에 실린 주체의 시련과 극복의 서사를 기적의 서사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인이 주체인 시련 극복의 서사와 성인이 매개일 뿐인 기적의 서사는 한 편의 성인전에서 인과가 아니라 병렬의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기적이 중심인 성인전에서 표4에 제시한 사례와 같이 기적이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대부분 기적으로 시련을 극복한 후에 적의 칼에 목숨을 잃는 서사와는 달리 이 이야기들에서 성인들은 적의 고문이나 형벌에 아무런 기적도 보여주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 만약 성인을 주체로 이 서사를 이해한다면, 이 유형의 이야기에서 기적을 읽어내기는 어렵다. 다른 성인들은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너무나도 쉽게 극복하지만, 이들은 그들에 비해 무엇인가 부족하여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성인이라면,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기적을 찾아내야 하고, 그것은 서사의 주체를 성인이 아닌 기적, 또는 천주로 볼 때 가능하다. ‘치명(致命)’을 행위의 결과가 아닌 천주의 의지 또는

표4- 명시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여성 성인 전기 목록

축일	이야기 순서
2월 9일	성녀 아폴로니아 동정 치명 ①②③⑨(자살이 아님을 덧붙임)
9월 7일	성녀 레지나 치명 ①③④⑤⑨
10월 27일	성녀 사비나 치명, 성녀 크리스테타 치명 ③④⑤⑨
12월 2일	성녀 비비아나 동정 치명 ①③⑨
12월 20일	성녀 빅토리아 동정 치명 ①③④②⑨

은혜로 이해하면, 이 이야기들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성녀 아폴로니아 동정’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아폴로니아의 행위만 보면 이 이야기에서 그녀는 적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의 전기에서 그녀의 죽음은 “창졸수에 일을 이긋치 쳐단흙은 반드시 턴쥬의 성우로 조차옴이오 결단코 인력이 아닌지라”라고 쓰여 있다.⁴³⁾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 같지만, 성녀 아폴로니아는 성인의 뜻에 따라 치명했다는 것이다. 아폴로니아의 죽음을 성인의 뜻으로 이해한다면, 위에 제시한 다른 사례들에서도 성인의 죽음은 모두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치명이라는 성인의 뜻이 행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명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규칙을 찾기보다는 치명, 즉 적의 칼에 목을 베이는 것 자체를 성인의 뜻이자 기적으로 보는 것이 시련에 대응하는 양상이 제각각인 서사를 이해하기에 적절하다. 즉, 표4에 제시한 다섯 편의 성인전 역시 적의 괴롭힘 속에서도 결국에는 순교에 이른다는 점에서 『성년광익』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련 극복의 서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성인전의 서사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⁴⁴⁾ 이를 제외하고 성인전에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최초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즉 1차 시련을 극복한 뒤에 성인들의 행동은 유사한 경로를 거친다. 이들의 삶은 최종적으로

43) 『성년광익』, 291쪽. “악당이 또 성녀를 쓰우고 성 맞고 나가 큰 불을 베풀고 닐너 굴오더 너ㅣ 즐겨 턴쥬를 빈반치 아니면 반드시 이 불 가운데 솔오리라” “턴쥬 성우를 넘어 다시 말을 기드리지 아니코 스스로 불 가운데 드러가 치명하시니.”

44) 『성년광익』의 여성 성인 가운데 특별한 기적 없이 성인이 된 이는 성부 펠라지아가 유일하다.

10월 11일	성부 펠라지아 회표 ①③④⑤⑦⑥⑨
---------	--------------------

성인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듯하지만, 서사의 초점은 성인이 되기 위한 시련의 극복과 성취보다는 천주의 기적에 맞춰져 있다. 성인을 구하기 위해서 기적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존재함을 보이기 위해서 성인은 잠시 고통에 처할 뿐이다. 기적이 일어나 자신을 괴롭히던 이들이 죽거나 병들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 죽음의 위기를 피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일일 뿐이다. 기적은 이들을 시련에서 구하지 않는다. 기적은 잠깐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 순간 죽음을 미룰 뿐이며 치명이라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적의 목적은 악인을 벌하거나 선인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단지 기적임을 알리기 위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성인전의 서사에서 성인은 주체이기에 앞서 기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한글본 『성년광익』의 기적의 양상

박해 시기 조선의 천주교 신도들이 성인전을 읽으며, 성인과 같은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은 여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성인전에는 주인공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적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상관없이 천주의 뜻에 따라 나타나는 기적도 있다. 다양한 양상으로 제시되는 기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장에서는 『성년광익』에 실린 기적의 유형을 분류해보려고 한다.

『성년광익』에 나타난 기적들은 구제(救濟), 처벌과 깨우침, 입증(여기에는 사후 이적도 포함된다.), 예시, 극복, 응답, 보상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구제, 예시, 입증으로서의 기적은 천주가 행할 수도 있고 성인이 행할 수도 있다. 성인에게만 나타나는 기적에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위기의 ‘극복’이 있으며, 천주에게만 나타나는 기적에는 ‘처벌과 깨우침’, 성인의 기도에 대한 천주의 ‘응답’, 성인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천주의 ‘보상’이 있다.

먼저 ‘구제’의 유형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천주나 성인이 구해주는 기적을 가리킨다. 가령 ‘성녀 테오도라 동정’의 이야기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천주의 기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구하는 ‘성부 그로틸다 황후’의 기적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고문으로 생긴 상처를 낮게 하는 ‘성녀 크리스티나’의 사례처럼 옥에 갇혀 괴로움을 겪는 성인을 도와주고 구하는 기적 또한 이에 포함된다.

‘성부 바울라’⁴⁵⁾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이후 수절하며 자신의 아이들보다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며 극기하는 삶을 산다. 이후 천주는 종기일(終期日)을 묵시하고, 그녀는 약속된 날에 승천한다. 바울라의 수절과 봉사에 대해 천주가 ‘예시’라는 기적을 보여준 것이다. ‘예시’로서의 기적은 대체로 모든 성인전의 마지막에 종기일을 묵시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성인들은 천주가 승천할 날을 미리 알려주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때로 성인의 가족에 대한 묵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가령 성녀 에우프라시아⁴⁶⁾가 혼인하지 않으려고 이집트로 도주하여 수도원에 머무는 동안 천주는 성녀가 머물던 수녀원 원장에게 그녀 어머니의 종기일을 묵시한다. 물론 후에 천주는 그녀의 승천일도 묵시한다. 예시는 천주가 성인의 종기일을 묵시하는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성인이 가족이나 나라의 앞일을 미리 아는 경우도 있다.⁴⁷⁾

‘극복’에 해당하는 기적은 『성년광익』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으로서, 감옥에 갇히거나 형벌을 받는 성인이 기적을 일으켜 자신을 해하려는 맹수들을 길들이거나, 끓는 기름이나 불타는 방에서도 죽지 않는 것 등을 가리킨다. 이 유형의 기적은 ‘증거’로서의 기적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성녀 도로테아⁴⁸⁾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자로 관가에 잡혀가 형틀에 묶인 채로 사지를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한다. 그럼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녀에게 관원들은 천주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한겨울에 꽃과 과일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녀는 관원의 요구에 응하여 꽃과 과일을 전한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 그녀가 증거를 댔음에도 관원들은 그녀의 가슴을 쇠갈고리로 찌르는 고문을 계속하는 것이다. 관원이 내준 시험을 통과, 즉 ‘극복’했는 데도 그녀는 여전히 시련에 처한 상태라는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기적의

45) 『성년광익』, 238-242쪽.

46) 『성년광익』, 411-416쪽.

47) 황후 마르가리타.

48) 『성년광익』, 280-283쪽.

목적은 성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성녀 프리스카⁴⁹⁾는 천주를 믿고 수정을 지키려고 하자 사자 우리에게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사자 우리에게 들어간 그녀 앞에 사자가 공손히 엎드리는 기적(‘극복’)이 일어난다. 다시 그녀를 큰 불에 집어넣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번에도 그녀를 불에 집어넣자 큰 불이 꺼지는 기적(‘극복’)이 일어난다.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이렇게 위기를 모면한 주인공이 악인을 처벌하고 원하던 것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나 성인전은 악인의 처벌 혹은 위기로부터의 탈출로 끝나지 않는다. 성녀 아네스⁵⁰⁾ 역시 기적을 일으켜 자신을 고문하는 이들로부터 살아남지만(‘극복’), 이내 다시 목을 내밀어 형벌을 받는다. 이처럼 성인들은 자신과 천주의 존재를 ‘입증’하는 여러 성적을 행하여 위기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극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치명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이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주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임을 보다 명확히 한다.⁵¹⁾ ‘입증’로서의 기적은 이들이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일어난다. 성녀 레오크리시아⁵²⁾는 이교도인 부모를 피해 도망가서 수양하며 지내다 부모의 신고로 관원에게 고문을 당하여 죽는다. 기적은 그녀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데, 하수에 버려진 시체가 잠기지 않고, 그녀의 무덤에서 이적이 많이 일어난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도 기적은 레오크리시아의 시련을 멈추거나 그의 목숨을 구하지 않으며, 다만 당시의 이교도나 천주교 신자 혹은 독자에게 천주와 성인의 존재를 ‘입증’할 뿐이다.

‘처벌과 깨우침’은 주로 천주가 행하는 기적이다. ‘성녀 저노워파’⁵³⁾의

49) 『성년광의』, 206-208쪽.

50) 『성년광의』, 214-218쪽.

51) 물론 천주의 존재를 입증하는 기적이 언제나 성인의 ‘극복’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성녀 마르티나는 왕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고 사묘에서 기도하여 기적을 일으킨다. 마르티나가 기도를 하자 세상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한다. 이후 그녀는 고문을 심하게 당하였지만 굴하지 않았고 결국 치명하였다. 성녀 아가타 역시 고문으로 온 몸에 상처를 입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 이 상처를 순식간에 치료해주었다. 또한 그녀를 불태우려 하자 땅이 진동하고 집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세상을 버린다. 이 이야기들은 ‘입증’과 ‘처벌’이 함께하는 유형의 이야기이다.

52) 『성년광의』, 437-440쪽.

53) 『성년광의』, 155-157쪽. “흐르는 모친이 성당에 갈 식 성녀와 더브러 흥가지로 가기를 즐기지 아니키늘 성녀ㅣ 두세 번 청흔디 모친이 뉘이허 닉여 흥분 컷더니 모친의 눈이 즉시 먼지라 두히 후에 그 모친이 비로소 허물을 누우쳐 주익 구호고 성녀를

전기에서 기적은 ‘처벌’에 해당한다. 저노위과의 모친은 성당에 가지 않으려고 성녀를 한 번 치고는 즉시 눈이 먼다. 저노위과는 어려서부터 천주를 열심히 섬겨 사람들이 모두 장차 그녀가 성인이 될 줄을 알았으며, 주교는 그 부모에게 그녀에 관한 천주의 묵시를 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믿음을 갖지 않은 모친은 천주의 계시를 무시하고, 성녀의 뜻을 따르지 않다가 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성부 메라니아⁵⁴⁾는 수정할 뜻이 있었으나 부모의 뜻에 따라 교우와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하여 낳은 아이들이 다 어려서 죽고, 성녀 또한 병에 걸리자 “성부의 본뜻을” 아는 남편이 천주에게 아내와 따로 거주할 것을 맹세한다. 이 이야기에서 아이들이 어려서 죽고 성녀가 병에 걸린 것은 수정할 뜻이 있었던 메라니아가 결혼한 데 대한 ‘처벌’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성인이나 일반인들을 깨우치려는 목적으로 천주가 기적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간절한 기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적도 있다. 성녀 스킨라스티카⁵⁵⁾는 자신이 죽을 날을 묵시를 통해 알고 나서, 남녀가 함께 밤을 보내면 안 된다는 규율이 있는데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동생과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떨치지 못한다. 그녀의 남동생은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성녀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천주에게 소망을 기원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수정을 맹세한 데다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사적인 감정을 누르지 못하는 이 여성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천주는 기적을 일으켜 성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며, 그녀는 원하는 바를 이룬 뒤에 승천하고, 아우는 이 모습을 지켜본다. 대체로 성인전에서는 수정 결심을 끝까지 지킨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늘 그런 것만도 아님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성녀 베드로닐라는 혼인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치명이라는 응답을 받으며, 성부 안나 동정 마리아의 어머니는 아이를 구하는 기도에도 응답을 얻는다.

‘보상’은 열심히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천주가 이적을 행하여 그들의 행적을 기리거나, 특별한 배려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명하야 물을 가져 강복하기를 구한 후에 그 물노써 눈을 씻스니 전과 같치 붉은지라.”

54) 『성년광익』, 157-161쪽.

55) 『성년광익』, 293-296쪽.

성부 카타리나의 입중 시 천주는 특별히 붉은 별을 밤낮으로 밝혀 그녀의 성스러움을 알리며, 성녀 찻지의 마리아 막달레나의 경우 시련을 극복한 그녀가 승천할 수 있도록 천주는 그녀에게 중병을 내리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기적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나타나는가는 이야기마다 모두 제각각이고, 그 유형을 ‘응답’, ‘보상’, ‘구제’, ‘처벌과 깨우침’, ‘입중(여기에는 사후 이적도 포함된다.)’, ‘예시’, ‘극복’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지만,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기적도 사실은 모두 천주의 존재를 ‘입중’하기 위한 것이며, 성인의 삶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데 묶어 이야기할 수 있다. 한 편의 성인전을 읽고 나면 위와 같은 기적들이 모두 성인의 뜻에 따른 것이며, 성인의 시련 ‘극복’이 곧 천주의 ‘응답’이자 ‘보상’으로, 천주의 ‘처벌과 깨우침’이 ‘구제’와 ‘입중’으로 그 외에도 하나의 기적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양한 유형의 기적들은 모두 천주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주인공이 성인이 된다는 것 말고는 여기에 특별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적은 천주를 믿지 않는 이들을 처벌하고,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믿음이 없던 이들은 기적을 목격하고도 악행을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성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기적이 일어나야만 믿음이 생기고 더욱 굳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인의 믿음은 이들을 시련에서 구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으로 이끌기도 하는데, 이를 구분할 기준은 없다. 대다수의 성인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부터 천주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적이 일어나 성인과 악인의 행동과 생각이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요컨대 성인전은 그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이야기이다. 모든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들의 태도나 마음이 아니라 천주의 의지이다. 언제 어떤 이유로 나타날지 짐작하기 어려운 기적의 드러남을 읽는 것, 모든 것이 천주의 통제 아래 존재한다는, 그리하여 우리가 삶의 불가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성인전 독서의 핵심이다.⁵⁶⁾

56) “우리는 성서를 역사화된 산문픽션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가장 분명한 예를 들자면, 족장들의 이야기는 민족적 전승에 기반을 둔 복합적인 픽션이라 할 수 있으나, 작가들

따라서 성인전에서 ‘기적’은 어떤 행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보이는 원리나 윤리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 텍스트에서 기적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나머지 모든 행위를 해석해주는, 나머지 모든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적을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지만, 기적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행위들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갑자기 눈이 멀고, 어린 자식들이 세상을 떠나고, 병에 걸리는 등의 모든 일은 그저 우연의 산물일 뿐이다. 기적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 역시 기적을 믿고 나서야 가능하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행위가 기적과 관계될지 알 수 없으나, 기적이 일어난 후 독자는 성인들의 어떤 행위가 기적과 관계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적과 성인의 행위는 독자에 의해 사후적으로 연결된다.

기적이 발생하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고 불규칙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기에 능동적으로 쟁취할 수 없으므로, 천주교인들에게 기적은 “미리 계획하거나 의식적인 결단을 통해 취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감정”인 것이다.⁵⁷⁾ 그러므로 조선의 천주교 신도들에게 성인전은 매우 난해한 텍스트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성인전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성인에 대해 알고 싶거나 천주의 존재를 확신하려면 읽어야 하는 텍스트였던 것이다. 성인전에 나타나는 다양한 기적은 모든 것의 배후에 천주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선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만 그것을 기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독서 매커니즘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성인전 독서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 그 내러티브를 예상대로 흘러가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온갖 모순과 변칙을 가미해가며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존재하는 인간 삶의 불가해성을 보여주고 있다.” 로버트 알터 저, 황규홍 외 역, 『성서의 이야기 기술』(아모르문디, 2015), 49쪽.

믿음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인전의 독자는 기적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를 토대로 기적이거나, 천주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인전을 기적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독자들이 기적의 이야기를 읽고 그것을 믿는 것은, 이미 독서 이전에 천주의 존재를 믿고 있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믿음이 없다면 이 이야기들은 독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았을 것이다.

이벽은 천주교를 믿지 않는 이가환에게 ‘기본 교리책’을 몇 권 주며 자신의 종교를 알리고자 한다. 그러나 이벽은 『성년광익』만큼은 이가환에게 주는 것을 꺼리는데, 그 이유는 이 책에 적혀 있는 ‘성스러운 기적을 이가환이 믿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⁵⁷⁾ 이벽의 이와 같은 태도는 다른 교리서들과는 다르게 『성년광익』이 이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제대로 읽힐 수 있는 텍스트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성인전을 읽는 것은 독서를 통해 모르는 사실을 알아가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을 가져야만 성인전에 기록된 성인들의 신이한 행적을 통찰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성인전 독서는 모르는 채로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 이전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성인전은 믿음을 가진 독자만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텍스트이기에 천주를 향한 믿음이 없거나 기록된 기적의 내용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성인전은 무의미한 텍스트가 되고 만다. 성인전 독서는 내용을 읽기 전에 이미 제시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상태라는 역설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믿음은 그것이 자유로운 선택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57) 슬라보예 지젝 저, 김소연 역, 『뻘뻘하게 보기』(시각과 언어, 2010), 71쪽.

58) 갑진 을사년 무렵에 이가환은 이벽 등이 성교를 믿고 따른다는 말을 듣고 책망하며 말하기를 “나 역시 서양 서적 몇 권을 보았는데 <그의 집에 직방이기, 서학범 등이 있었다> 기문벽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단지 내 식견은 넓힐 수 있을 뿐이로되, 어찌 그것을 믿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하찮은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리요?”라고 하였습니다. 이벽이 이치에 의거하여 답을 하니 가환이 말이 막혀 마침내 책을 가져다 자세히 읽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벽은 기본 교리책 중 몇 가지를 주었는데, 그때 성년광익 한 권이 있었으나 가환이 성스러운 기적을 믿지 않을까 하여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환은 기어코 달라고 하였습니다. 가환은 이벽이 그때 가지고 있던 성교 서적을 모두 가지고 가서 정신을 가다듬어 되풀이해 읽어보고는 성교를 믿기로 뜻을 결심하고 “이것은 진리요 정도다. 진실로 사실이 아니라면 이 책 가운데 한 말은 다 하늘을 모함한 것일 따름이요, 하늘을 업신여긴 것이니 서양 선교사가 바다를 건너와 전교하지 못하고 마땅히 벼락을 맞아 죽었을 것이다.” 하고 마침내 제자들을 권하여 교화하고 몰래 아침저녁으로 이벽 등과 토론하며, 상당히 열심이었습니다.(밀줄 필자, 황사영 저, 김영수 역, 『황사영 백서』(성황석두루가서원, 1998), 59-60쪽.

현재에 일어나는 법이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그것은 항상 이미 선택되어져 있다. 어느 순간 난 벌써 선택했다고 소급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⁵⁹⁾

이처럼 성인전을 읽기 위해서는 믿음 이전의 믿음이 필요하며, 그것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갖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전 독서는 수동적이고 비의지적인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서 방식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다. 일반적인 영웅소설이나 '전(傳)'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의 타고난 본성이나 신분 또는 의지와 행위인 데 반해, 성인전에서는 성인의 의지나 노력보다 천주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성인 역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의지를 굳게 다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천주에게 달려 있다. 성인의 행위와 인과관계를 맺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천주, 즉 기적의 서사, 성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기적보다 훨씬 빈번하게 나타나는 천주의 불규칙적인 기적 등으로 볼 때, 성인전은 이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의 서사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성인전을 읽기 위해서는 믿음 이전의 믿음이 필요하며, 그것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갖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전 독서는 수동적이고 비의지적인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인전 독서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성격의 독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다시 말해 조선인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결국 모두 순교 성인에 관한 이야기⁶⁰⁾라고 할지라도 조선의 여신도들은 수동적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성인이 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에서 성인전의 주인공들과 변별점을 갖는다는 것이다.⁶¹⁾ 이들은 자신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무한정 기다리기보다는 성인전에 나타난 증거, 즉 '입증'으로서의 기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순교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선택했다. 수정 맹세와 그로 인한 순교가 바로 이들이 성인이 되고자 행한 능동적인 노력이다. 박해 시기 천주교 여신도들은 자신의 죽음을 성취해야만 하는 목표로 인식하고,

59) 슬라보에 지젝 저, 이수련 역, 『이테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인간사랑, 2002), 264쪽.

60) 김윤성, 앞의 논문, 72쪽.

61) 특히 박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 순교자의 비중은 늘어났으며, 특히 『기해일기』를 중심으로 볼 때, 과부나 동정녀가 전체 여성 순교자의 2/3를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김정경, 앞의 논문(2011), 152쪽.

자신의 삶을 순교를 향한 일방향의 서사로 의미화한 것이다.⁶²⁾

조선의 천주교 여성 신도들은 “피를 흘릴 욕망에 불타기까지”했으며 “순교하기를 서로 격려하고 순교방법을 찾는” 데 열중했다. 이토록 순교를 열망한 것은 기적과 이들이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데 순교가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기적은 우연히, 불규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교는 다르다. 수정 맹세를 꺾지 않고 천주를 부정하지 않으면 이들은 순교의 자격을 얻고 순교자가 되는 것은 언제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들이 성인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성인이 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무의지적인 것이며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순교는 유일하게 성인이 될 수 있는 방편이며, 개인의 의지로 이를 수 있는 기적이다. 유일하게 나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직접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조선의 여성 신도들은 죽음의 순간 여성 성인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과 그들 사후에 일어난 이적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읽고 순교의 순간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확신했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의 강도가 강할수록, 시련의 정도가 심할수록 자신이 그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순교를 성취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선 후기 천주교 여신도들의 순교에 대한 열망을 이해한다면, 당시 동정 서원을 한 신자들 대부분이 여성이고⁶³⁾, 동정서원을 지키려는 그들의 의지가 그토록 강했던 사실을 좀 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⁶⁴⁾ 남성의 경우 교회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찾을

62) 김정경, 앞의 논문(2011), 152쪽.

63) “1835년에 사신행차를 따라 북경으로 건너간 조선인 신자들이 초대 조선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의 전권대사인 중국인 왕 요셉을 만나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조선에는 동정서원을 한 여성 신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동정서원을 한 남성 신자들은 별로 없었다.” 샤를르 달레 저, 안응열·최석우 역, 앞의 책, 294쪽; 이유진, 앞의 논문, 274쪽에서 재인용.

64) 조선에서 여성 동정 순교자가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를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찾는 논의도 있다. “여성 동정 순교자 설화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하느님께 동정을 바치고자 하는 원의와 순교에 대한 열망은 하느님과의 완전한 결합을 추구하는 열렬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 동정 순교자 설화가 그 특수성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신앙과 순교의 의미는 하느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유진,

수 있었던 데 비해 여성에게는 순교를 제외하고는 성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여성들이 의지와 노력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순교뿐이었으며, 순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동정서원을 하는 것이었다. 교회 안에서 남성들이 공적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여성들은 수정을 결심하고 순교를 함으로써 존재의 의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천주교의 도입은 분명 이전까지 당연하게 여긴 주체화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는 주어진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데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방향으로 드러났다고 하겠다.

물론 이상의 내용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아직은 가설 수준의 것이다. 조선 후기의 성인전과 순교자전을 비교 검토하여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는 작업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추후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천주교 신도들이 접했던 성인전의 서사가 어떠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보임으로써, 조선 후기 천주교 여신도들의 동정과 순교를 향한 열망을 성인전 독서와 관련하여 검토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내용을 읽기 전에 이미 제시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상태라는 역설적인 방식으로만 성인전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글본 『성년광익』의 이러한 역설적 독서의 메커니즘이 조선 후기 천주교 여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정서원과 순교 그리고 새로운 독서 주체의 구성과 한데 논의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표5- 한글본 『성년광익』에 실린 여성 성인 목록 및 서사구조⁶⁵⁾

연번	편(월)	일	이름
1	춘-1	3일	성녀 제노베파 동정 ①③④⑦⑩⑨⑩ ① 예시, ③ 처벌, ④ 극복, ⑩ 극복, ⑩ 사후이적
2		4일	성부 멜라니아 고수 ①③②④⑤⑦⑧⑨⑩ ⑤ 보상, ⑧ 예시, ⑩ 사후이적
3		18일	성녀 프리스카 치명 ①③④⑨ ④ 극복
4		21일	성녀 아녜스 동정 치명 ①②③⑩⑤⑥⑨⑩ ⑩ 극복, ⑥ 극복, ⑩ 사후이적

앞의 논문, 285쪽.

65) 기적이 일어난 부분은 칸의 둘째 줄에 내용을 적어 이와 같이 표시하였음.

5		28일	성부 바울라 수절 고수 ①②⑦⑧⑨ ⑧ 예시
6		30일	성녀 마르티나 동정 치명 ①③④⑤⑨⑩ ④ 응답과 처벌, ⑩ 사후이적
7	춘-2	5일	성녀 아가타 동정 치명 ①②③④⑨⑩ ④ 구제와 처벌, ⑩ 처벌과 사후이적
8		6일	성녀 도로테아 동정 치명 ①③④⑤⑨ ④ 입증
9		9일	성녀 아폴로니아 동정 치명 ①②③⑨
10		10일	성녀 스킨라스티카 동정 ①②⑦⑧⑩⑨ ⑧ 예시, ⑩ 응답
11		13일	성부 마르가리타 고수 ①⑩⑦③④⑧⑨ ⑩ 깨우침, ④ 구제, ⑧ 예시
12		16일	성녀 율리아나 동정 치명 ①③④⑩⑨ ⑩ 구제
13	춘-3	3일	성부 구네군다 황후 ①②③④⑦⑩⑨⑩ ④ 구제, ⑩ 극복, ⑩ 사후이적
14		6일	성녀 콜레타 동정 ①⑩③⑦④⑤⑥⑨ ⑩ 응답, ④ 구제
15		9일	성부 프란치스카 고수 ①②⑩⑧②⑩⑧⑨ ⑩ 구제, ⑩ 구제, ⑧ 예시
16		11일	성녀 카타리나 동정 ①⑦⑧⑨⑩ ⑧ 예시, ⑩ 사후이적
17		13일	성녀 예우프라시아 동정 ①③④⑧⑩⑧⑨ ⑧ 예시, ⑩ 극복, ⑧ 예시
18		20일	성녀 레오크리시아 동정 치명 ①③④⑤⑨⑩ ⑩ 예시
19		22일	성부 카타리나 동정 ①②③④⑦⑩⑨ ⑩ 예시, ⑨ 보상
20		28일	성부 페르페투아 치명. 성부 펠리치타 치명 ①③⑧⑤⑨ ⑧ 예시
21		하-4	1일
22	16일		성녀 리드비나 동정 ①③④⑤⑥⑦⑧⑨ ④ 응답, ⑥ 응답, ⑧ 예시
23	18일		어머니 성 안티아 치명 ⑩③④⑨ ⑩ 극복
24	27일		성녀 테오도라 치명 ①③④⑨ ④ 응답
25	30일		성녀 시에나의 카타리나 동정 ①②③⑩④⑦⑤⑥⑨⑩ ⑩ 입증, ④ 깨우침, ⑥ 응답, ⑩ 사후이적
26	하-5	4일	성부 모니카 아우스티노 성인의 어머니 ①③④⑤⑩⑥⑨ ⑩ 예시
27		12일	성녀 도미틸라 치명 ①②③④⑤⑨⑩ ⑩ 사후이적

28		15일	성녀 디오니시아 치명 ①③④⑨ ④ 구제
29		22일	성녀 율리아 동정 치명 ①③⑦④⑤⑨⑩ ⑩ 사후이적
30		27일	성녀 찻지의 마리아 막달레나 동정 ②③④⑦⑩④⑤⑩⑨ ⑩ 구제, ④ 깨우침, ⑩ 보상, ⑨ 보상
31		31일	성녀 베드로닐라 동정 ①③④⑤⑥=⑨ ⑥=⑨ 응답
32	하-6 (상)	3일	성부 그로틸다 황후 ①③⑦④⑩⑦⑩⑧⑨ ⑩ 응답, ⑩ 구제, ⑧ 예시
33		10일	성부 마르가리타 황후 ①⑦⑩⑨ ⑩ 예시
34	하-6 (하)	17일	성부 율리타 치명 ①③⑩⑨ ⑩ 보상
35		23일	성후 에멜드레다 동정 ①②⑦⑧⑨⑩ ⑩ 사후이적
36	추-7	2일	성모 엘리사벳 찾아가심
37		6일	성부 고델리바 치명 ①③⑦④⑤⑨⑩ ⑩ 보상과 사후이적
38		8일	성부 엘리사벳 국후 ①⑦⑩⑦⑨ ⑩ 구제
39		9일	성녀 아나톨리아 치명 ①⑩③④⑤⑥⑨ ④ 극복, ⑥ 극복
40		22일	성부 마리아 막달레나 ①⑦⑩③④⑨⑩ ⑩ 구제, ④ 보상, ⑨ 구제, ⑩ 사후이적
41		24일	성녀 크리스티나 치명 ①③④⑤⑥⑦⑨ ④ 구제, ⑥ 극복과 처벌
42		26일	성부 안나 동정 마리아의 어머니 ①⑦③④⑩ ④ 응답과 예시
43		29일	성녀 마르타 동정 ①⑩③④⑦⑧⑨⑩ ④ 구제, ⑧ 구제, ⑨ 보상, ⑩ 사후이적
44	추-8	11일	성녀 수산나 동정 치명 ①②③④⑨ ④ 응답
45		12일	성녀 글라라 동정 ①②⑦⑨⑩ ① 예시, ⑦ 응답, ⑨ 보상, ⑩ 사후이적
46		21일	성부 요안나 수절 ①⑦⑩②⑦⑨ ⑩ 구제
47		30일	성녀 로사 동정 ①②③④⑦⑤⑥⑩⑧⑨ ⑥ 극복, ⑩ 보상, ⑧ 예시
48	추-9	3일	성녀 세라피아 치명, 성부 사비나 치명 ①②③④⑩⑤⑥⑨ ④ 구제, ⑩ 입증
49		7일	성녀 레지나 치명 ①③④⑤⑨
50		8일	성모성탄
51		11일	성녀 에우제니아 치명 ①②⑦⑩③⑨ ⑩ 구제

52	동-10	23일	성녀 테클라 동정 치명 ①②③④⑤⑥⑦⑨ ④ 극복, ⑥ 극복
53		26일	성녀 유스티나 동정 치명 ①⑦③④⑤⑥⑨ ④ 극복, ⑥ 극복
54		8일	성부 비르지타 정수 ①③④⑤⑥②⑦⑧⑨⑩ ① 예시, ⑩ 사후기적
55		11일	성부 펠라지아 회표 ①③④⑤⑦⑥⑨
56		12일	성녀 베네딕타 동정 치명 ①⑦③④⑤⑥⑨ ④ 극복, ⑥ 입증
57		15일	성녀 데레사 동정 ①②⑦③④⑦⑤⑥⑦⑧⑨ ④ 응답, ⑥ 예시
58		16일	성녀 에올람피아 치명 ③④⑨
59		17일	성부 헤드비지스 국후 ①②⑦③④⑩⑧⑨⑩ ④ 보상, ⑩ 예시, ⑩ 사후이적
60		25일	성 그리산도와 성부 다리아 부부 치명 ①③④⑤⑥⑨ ④ 구제, ⑥ 입증
61		27일	성녀 사비나 치명, 성녀 크리스테타 치명 ③④⑤⑨
62	동-11	5일	성 갈라시온과 성부 에피스테메 부부 치명 ①②③②④⑦⑤⑧⑨ ① 응답, ⑧ 예시
63		15일	성녀 제르트루다 동정 ①②⑦⑩⑦⑩⑨ ⑩ 예시, ⑩ 보상
64		19일	성부 엘리사벳 국후 ①⑦③④⑦⑧⑨⑩ ④ 구제
65		22일	성녀 체칠리아 치명 ①②③④⑧⑤⑥⑨⑩ ⑥ 응답
66		25일	성녀 가타리나 동정 치명 ①③④⑤⑥⑨⑩ ④ 극복, ⑥ 극복, ⑨ 입증
67		2일	성녀 비비아나 동정 치명 ①③⑨
68	동-12	9일	성녀 레오카디아 치명 ①③⑨ ⑨ 응답
69		10일	성녀 에올랄리아 치명 ①③④⑨ ⑨ 응답
70		13일	성녀 루치아 동정 치명 ①②③④⑤⑥⑨④⑥
71		15일	성부 크리스티아나 노비 ①⑦⑩③④⑨ ⑩ 구제, ④ 극복
72		20일	성녀 빅토리아 동정 치명 ①③④②⑨
73		24일	성녀 타르실라 동정, 성녀 에말리아나 동정 ①②⑦⑧⑨⑩=⑧⑩ ⑧ 예시, ⑩=⑧ 예시
74		30일	성녀 골롬바 동정 치명 ①②③④⑤⑥⑨ ④ 극복, ⑥ 극복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성년광익』 1·2(한국교회사연구 자료 제28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2. 단행본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2.

로버트 알터 저, 황규홍 외 역, 『성서의 이야기 기술』. 아모르문디, 2015, 49쪽.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순교자 이순이의 옥중편지』. 민음사, 2014.

샤를르 달레 저, 안용열·최석우 역, 『한국천주교회사』 중. 분도출판사, 1979, 335쪽.

슬라보예 지젝 저,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264쪽.

슬라보예 지젝 저, 김소연 역. 『빠딱하게 보기』. 시각과 언어, 2010, 71쪽.

황사영 저, 김영수 역, 『황사영 백서』. 성황석두루가서원, 1998, 59-60쪽.

3. 논문

강우성, 「설교, 자서전, 에세이: 미국 개인주의 담론의 기원」. 『미국학논집』 42권 2호, 2010, 107-138쪽.

김상헌, 「유고슬라비아 중세 성자전과 구비문학의 영향관계 연구: 동방정교권의 성자전과 구비 문학을 중심으로」. 『동유럽연구』 제16권, 2006, 1-24쪽.

김연희, 「올리아니아 라자렘스까야 성자전 연구」. 『한국노어노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2, 55-72쪽.

김윤성, 「초기 한국 가톨릭 성인 전기의 서지: 한문 서학서의 전래와 번역」. 『교회와 역사』 302호, 2000, 51-81쪽.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여신도들의 죽음의 의미화 방식 연구: 이루갈다의 〈옥중 서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2011, 131-156쪽.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여신도의 주체화 방식과 생애 기술 방식에 대한 고찰: 〈기해일기〉에 실린 여성 순교자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2014, 33-62쪽.

김현진, 「참수의 윤리 공포, 여성, 중세 로맨스」. 『안과 밖』 35집, 2014, 12-42쪽.

노용필, 「남회인의 ‘교요서론’ 수용 및 한글본 ‘교요서론’ 유포와 조선 후기 천주교의 성장」. 『한국천주교회사의 연구』, 한국사학, 2008.

노용필, 「조선후기 천주교 한글 필사본 교리서의 유통」. 『인문논총』 23, 2009, 31-54쪽.

방상근, 「18세기 말 조선 천주교회의 발전과 세례명」. 『교회사연구』 34, 2010,

63-91쪽.

- 방상근, 「《성년광익》의 서지 연구」. 『聖年廣益』,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6-16쪽.
- 윤인선, 「〈기해일기〉에 나타난 순교 경험의 서사화 양상: ‘고난’을 매개로 나타나는 순교의 문화적 의미」. 『기호학 연구』 38, 2013, 183-212쪽.
- 이민희, 「18세기 말-19세기 천주교 서적 유통과 국문 독서문화의 상관성 연구」. 『인문논총』 71권 4호, 2014, 9-43쪽.
- 이유진, 「한국 천주교 순교자 설화 연구: 여성 동정 순교자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6, 2008, 249-290쪽.
- 이재순, 「주년침례광익의 분석: 성인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논문집』 II, (1985)
- 이지영, 「한글 필사본에 나타난 한글 필사의 문화적 맥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2008, 273-308쪽.
- 장실, 「러시아 정교회 성자전 개관」. 『노어노문학』 제13권 제2호, 2001, 553-570쪽.
-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 출판 성행의 매체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 2008, 145-164쪽.
- 조한건, 「필사본 《성경직히광익》의 편찬배경과 형성」.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와 문화』, 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 최예정, 「중세 영문학에 나타난 젠더, 기독교, 그리고 읽기: 성녀전과 마저리 캠프를 중심으로」. 『중세르네상스 영문학』 14권 2호, 2006, 301-328쪽.
- 하성래, 「순교일기의 전기문학으로서의 특성」. 『한국교회사논문집』 I,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 홍옥숙, 「자서전과 성인전 사이에서: 앤 애스큐의 심문」. 『새한영어영문학』 57권 3호, 2015, 85-103쪽.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천주교 신도들이 읽고, 따르려 했던 성인전(聖人傳)의 서사 구조와 기적의 유형을 검토하여, 19세기 조선인들이 서학을 이해하고 수용한 방식을 드러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읽혔던 작자미상의 한글본 『성년광익』에 실린 여성 성인의 전기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 글의 II장에서는 한글본 『성년광익』의 서사 구조를 정리했다. 여성 성인의 전기는 수정(守眞)을 결심한 이들이 겪는 고난과 극복을 그린 이야기라는 점에서 영웅소설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주인공의 성취가 자질과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영웅소설과 구별된다. 성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적’인데, 이 기적은 성인이 행하는 것 또는 성인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전에서 주체의 시련과 극복의 서사는 기적의 서사와 인과보다는 병렬의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III장에서는 한글본 『성년광익』에 실린 기적의 유형을 분류했다. 이 글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성년광익』에 나타난 기적들은 구제, 처벌과 깨우침, 입증(여기에는 사후 이적도 포함된다.), 예시, 극복, 응답, 보상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이 여러 유형의 기적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사실은 성인전에서 ‘기적’은 어떤 행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보이는 원리나 윤리 같은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 텍스트에서 기적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나머지 모든 행위를 해석해주는, 나머지 모든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적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 역시 기적을 믿고 나서야 가능하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행위가 기적과 관계될지 알 수 없으나, 기적이 일어난 후 독자는 성인들의 어떤 행위가 기적과 관계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III장에서는 기적과 성인의 행위가 독자에 의해 사후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성인전 독서는 내용을 읽기 전에 이미 제시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상태라는 역설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역설적 독서의 메커니즘이 조선 후기 천주교 여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정서원과 순교 그리고 새로운 독서 주체의 구성과 한테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성인전은 수동적이고 비의지적인 기적의 출현을 이야기하지만, 이 같은 성인전 독서를 통해 형성된 독자 특히 조선의 여신도들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적을 쟁취하고자 노력했으며, 이 글에서는 이 차이와 변화가 조선 후기 천주교 도입의 의의를 해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투고일 2016. 12. 21.

심사일 2017. 1. 9.

게재 확정일 2017. 2. 27.

주제어(keyword) 천주교(Catholic), 순교(Martyrdom), 『성년광익』(*Songnyeongwangik*), 여성 성인(Woman saint), 동정녀(the Virgin Mary), 독서 방식(a Method of Reading), 전기(Biography), 성인전(hagiography), 순교자전(biography of martyr), 19세기(19th century), 기적(miracle)

Abstracts

A Study on the 19th Century Catholicism's Hagiography

Kim, Jong-kyoung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narrative structure and the type of miracle in the hagiography. This is to understand the Korean people in the 19th century. The subject of research is the biography of Woman saints in the Korean version of *Songnyeongwangik*.

In Chapter 2,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Songnyeongwangik* is organized. The biography of Woman saints is very similar to the structure of a hero novel. But the achievement of the main characters is not the result of hard work. This differs from a hero novel. It is a miracle to be a saint.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is miracle was earned by the result of hard work of a here. Thus, the plot of the subject in hagiography is connected in parallel with the plot of a miracle.

In Chapter 3, the types of miracles in the Korean version of *Songnyeongwangik* are categorized. Examples include salvation, punishment, enlightenment, demonstration, overcoming, compensation, reward, etc. These miracles are common only to believers. Therefore, a miracle interprets everything. In short, a miracle and saints' behavior are linked retroactively by the reader.

In conclusion, this article shows that the hagiography reading takes place in a paradoxical manner and a lot of female believers in the late Joseon dynasties did Martyr, not only because they believed in the miracles recorded in hagiography, but they drew a miracle into their life.